매일묵상
2022.9월호

발 행 인 I 차 동 혁
집필/편집 I 교역자실
진 행 I 신앙운동팀
고 척 교 회 I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Tel. 02.2686.5871
www.gocheok.or.kr

매일묵상 I 2022 09

고척교회

매일 묵상

2022. 9

Photo | 김충신 집사(소망-5)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

2022년

주제 성구

[신명기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9월
그라티아 갤러리

[사랑의 노래]

김인숙 작가
한국미술협회 이사
한국여성작가협회 운영위원

팬데믹 이전에 다녀온 여행지에서 뜨거운 태양의 빛과 열대식물의 푸름이 어우러진 풍경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름 모를 새들의 청아한 소리는 사랑의 인사라도 하듯 들렸습니다. 맑고 밝게 덧칠하지 않고 투명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매일 살아 숨 쉬는 생명체들은 우리에게 위안과 감동을 줍니다.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사랑, 은혜, 기쁨 등 좋은 에너지와 마음의 평안함, 따뜻함을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 9월 카페 '그라티아'에는 김인숙 작가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매일 성경
매일 찬송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이 름	
소 속 (교구-목장/부서)	

2022년 표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신16:11, 막1:15, 행2:47)

2022 매일묵상 9월

예레미야 32-52장, 예레미야애가 1-5장, 에스겔 1-20장

목차

기도를 배우다 03

9·10월 달력 04

9월 [오늘의 말씀] 06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07

매일묵상, '위드유'가정예배 14, 28, 44, 60

예레미야애가 해설 38

에스겔 해설 48

이달의 신앙프로그램 추천 74

교회소식 75

예배안내

부록

-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어요
- 가정예배 암송구절 카드

그라티아 갤러리 I 김인숙 작가의 [사랑의 노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 GOCHEOK PRESBYTERIAN CHURCH

기도를 배우다

열망이 자라게 하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묘성(昴星)과 오리온자리 별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새와 박새가 그 노래를 흉내 냅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대지휘자이신 주님을 따라 노래합니다. 저만 빼고.

왜 그렇습니까? 왜 저만 저 자신의 노래를 혼자 불러야 합니까? 저는 목이 곧은 피조물임에 분명합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더 충만히, 더 자주 주님의 지휘에 맞추어 노래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이고 변치 않는 사귐을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은 매우 작고 희미해 보이는 이 열망이 자라게 하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김영봉 엮음,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IVP 2004, 329.

리처드 포스터
(Richard Foster)
(1942- 미국의 영성신학자)

영성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레노바레'(Renovare)의 설립자.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적 영성을 깊게 하고, 삶에 적용하는 크리스천 영성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9

2022

성숙의 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엡 4:1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월삭새벽기도회	2	3 • 가을 일체심방 시작
4 • 가을 부흥사경회 • 어와나 2학기 개강	5 • 가을 부흥사경회	6 • 가을 부흥사경회	7 • M-12 하반기 개강	8 • 백로	9	10 • 추석
11	12 • 대체공휴일	13	14	15	16	17 • 마더와이즈 지혜5기(8주) 개강 • 희망의 복지재단 직원 워크숍
18	19	20	21	22	23 • 추분	24
25	26	27	28	29 • 은빛시니어 2학기 개강	30	

TO DO LIST

- ☐
- ☐
- ☐
- ☐
- ☐
- ☐
- ☐
- ☐
- ☐
- ☐

10

2022

축제의 달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시 89:1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월삭새벽기도회
2 • 교회창립기념주일	3 • 개천절	4	5	6	7	8 • 한로
9 • 한글날	10 • 대체공휴일	11	12	13	14	15 •교구별 체육대회
16	17	18 • 5060 하프타임 하반기 개강	19	20	21	22 • M-12 한마음 걷기대회
23 • 상강 • 찬양부 헌신예배 30 • 종교개혁주일 (이단대응세미나)	24 31	25	26	27	28	29

TO DO LIST

- ☐
- ☐
- ☐
- ☐
- ☐
- ☐
- ☐
- ☐
- ☐
- ☐

9월 [오늘의 말씀]

1일	예레미야 32장	16일	예레미야애가 1-2장
2일	예레미야 33-34장	17일	예레미야애가 3장
3일	예레미야 35-36장	18일	주일
4일	주일	19일	예레미야애가 4-5
5일	예레미야 37-38장	20일	에스겔 1-2장
6일	예레미야 39-40장	21일	에스겔 3-4장
7일	예레미야 41-42장	22일	에스겔 5-6장
8일	예레미야 43-44장	23일	에스겔 7-8장
9일	예레미야 45-47장	24일	에스겔 9-11장
10일	예레미야 48장	25일	주일
11일	주일	26일	에스겔 12-13장
12일	예레미야 49장	27일	에스겔 14-15장
13일	예레미야 50장	28일	에스겔 16장
14일	예레미야 51장	29일	에스겔 17-18장
15일	예레미야 52장	30일	에스겔 19-20장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1. '드라마바이블'이란?

드라마바이블은 오디오성경으로 100여 명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급 연예인과 국내 최고 작곡가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인수 장로, 다윗과 모세는 이재룡과 장광 배우를 비롯하여 권오중(요엘), 양준모(이사야), 엄지원(에스더·룻), 예지원(마르다), 우희진(하와), 박시은(마리아), 최윤영(마리아) 등 크리스천 배우들도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윤유선과 아나운서 최윤영, CCM 가수 송정미 등이 시편을 낭독하는 등 총 100여 명의 크리스천 성우, 배우가 기꺼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배경음악도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드라마, 영화음악 감독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함을 오디오로 접할 수 있습니다.

2. 드라마바이블 활용법

'드라마바이블'을 활용하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성경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와 [고척교회 앱]에서 [매일묵상-드라마바이블]을 클릭하면, ① **매일묵상 읽기본문에 따라서 드라마바이블을 들을 수 있고,** ② **2022년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읽기표와 '드라마바이블'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 **www.gocheok.or.kr**
고척교회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고척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실행

목

9월

01

아나돗의 밭을 산 이유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5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묵상할 본문 I 렘 32:36-41

36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
시니라 37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38그들은 내 백성
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묵상 가이드

"아나돗의 밭을 사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멸망을 눈앞에 둔 나라의 땅을 매입하라는 말씀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은 17세겔(당시 일반인의 연봉)을 주고 베냐민 땅 아나돗의 밭을 구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특별히 입술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돈을 지불하여 그 땅을 매입함으로써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근래에 언뜻 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경험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믿노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심판 중에도 여전히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2. 매주 드려지는 유치부 예배를 통해 교역자, 교사, 학부모, 아이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3.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금

9월

02

부르짖음의 영성을 회복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69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3-34장

묵상할 본문 I 겔 33:1-3

[1]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
하니라 이르시되 [2]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
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
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묵상 가이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예레미야를 묶어둘 수 있었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와 같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곧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주관하고 있으며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도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잃어버렸던 부르짖음의 영성은 회복될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임했던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임하였습니까?

*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부르짖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소서.
2. 유년부의 예배와 여러 사역들을 통해 유년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예배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향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소서.

토

9월

03

레갑 자손의 순종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5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5-36장

묵상할 본문 I 렘 35:14-16

14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
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5내가 내 종 모든 선지
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
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
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
지 아니하였느니라 16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묵상 가이드

레갑 자손들은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으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평생 장막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조상의 명령에도 이처럼 순종하며 대대로 살아왔던 레갑 자손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조들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온 레갑 자손들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35:19)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시대에도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레갑 자손의 순종이 필요하겠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음세대 또한 우리들로부터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대로 잘 계승되어야 할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영적 메마름의 시대에도 레갑 자손의 순종을 본받아 여전히 하나님만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2. 소년부의 예배가 기다려지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소서.
3. 지역사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구청장, 구의원, 공무원, 기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지역을 잘 섬기게 하소서.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찬 양 찬송가 337장

말 씀 다니엘 2:20-23

나누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지만 시련의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련의 계절이 계속될 것 같지만 영원한 시련은 없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새로운 인생의 계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질 문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련의 계절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 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련의 계절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와 계절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시련의 계절을 만날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에는 어떤 곡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찬송을 한 곡 정해 보세요.

암송구절 **다니엘 2: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9월 4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9월
05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7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7-38장

묵상할 본문 I 렘 38:3-5

3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
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4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5시드기
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
느니라 하는지라

묵상 가이드

본문 5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란 신분을 갖고도 얼마나 무능하고 비굴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임의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친 애굽 정책을 펴고 있는 유다 고관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관들에게 인정받고 왕위와 신변의 안정을 위하여 예레미야에 대한 불의한 처분을 묵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공동 번역 성경은 "시드기야 왕은 그들을 막을 힘이 없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도 무능하고 비굴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10:28) 세상을 향한 용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기 바랍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힘이 되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의지하고 따랐던 경험이 있습니까?

* 세상의 물질과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묵상합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소서.
2. 중등부 학생들의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꿈과 목표를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3.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소서.

화

9월

06

믿음으로 행하는 선택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0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9-40장

묵상할 본문 I 렘 39:15-18

15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6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
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
앞에 이루리라 17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
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
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
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묵상 가이드

"내가 너를 꼭 구해 주겠다. 너는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17-18/쉬운성경)"
에벳멜렉은 구스 사람으로 유다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레미야를 구출한(38장) 에벳멜렉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예레미야를 구출한 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었던 신앙적 동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시고 에벳멜렉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신의 신분과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을 보인 에벳멜렉을 보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선택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상황과 여건을 핑계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 오늘 선택해야 할 중요한 결정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세상 권력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며 살게 하소서.
2. 학업과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고등부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삶의 목표와 비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두게 하소서.
3.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소서..

수

9월

07

마음을 지키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15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1-42장

묵상할 본문 I 렘 42:20-22

20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
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
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1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
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묵상 가이드

본문 20절 말씀은 유다 잔류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맹세를 하고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 순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속인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를 속인 것이며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든 악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범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맹세하고 순종하기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것이 믿음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지킬만 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과의 약속을 순간의 이익을 위하여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한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묵상합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청년공동체가 예배와 모임을 통하여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3.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목

9월

08

책망과 징계보다 두려운 것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25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3-44장

묵상할 본문 I 렘 44:24-25

24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5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
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
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묵상 가이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의아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가장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심에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를 권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를 조장하며 유다 백성들을 범죄와 타락으로 몰아넣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진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유다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자비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하여도,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자비도, 긍휼도 남겨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책망과 징계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책망과 징계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인지 묵상합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물질의 형통과 성공적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지는 않는지 묵상해 봅시다.

* 악한 자리에서 형통한 삶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책망과 징계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되지 않고, 책망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2. 은빛시니어학교 어르신들이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교역자와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기쁨의 섬김이 되게 하소서.
3.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소서.

금
9월
09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6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5-47장

묵상할 본문 I 렘 45:4-5

4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
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묵상 가이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 배우들이 열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의 경우 주연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만 조연은 사람들 뇌리에서 쉽게 잊혀 지게 마련입니다. 본서에서 언급된 예레미야는 주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룩은 조연 정도에도 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개 예레미야는 알아도 바룩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바룩이 과연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길 바라고,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해야 할 바, 성경을 대필하고 예레미야 곁에서 의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로운 일에 실망과 좌절, 회의적인 상황으로 인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룩을 잊지 않으셨고 참된 위로와 견책 그리고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주연과 조연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에 임하는 마음을 돌아보고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를 묵상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기쁨과 감사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기억되는 사역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시험에 빠진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어떠한 사역이 주어진다 하여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어와나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로부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은혜가 풍성한 시간,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3.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지하교회 교인들이 밖으로 나아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소서.

토

9월

10

교만을 멀리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52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묵상할 본문 I 렘 48:42-44

42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
다 43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44두
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묵상 가이드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방 민족 중 모압에 대한 예언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역사 속에서 줄곧 적대적인 관계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의 행습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극심한 신앙적 타락과 부패에 빠지게 했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압의 부패와 범죄, 그리고 그 패망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교만이 모든 패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죄악이 바로 인본주의적 안일에 빠져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이 이러한 죄로 인하여 패망하게 되고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인본주의적 사고에 빠져 자칫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나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묵상해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기도

1.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2. 교회학교 전도에 어린 생명을 위하여 전도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도할 때 아프지 않고, 풍성하게 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3. 전쟁으로 참혹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소서.

재물보다 귀한 사람

찬 양 찬송가 393장

말 씀 고린도후서 12:14-15

나누기 바울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재물까지 사용했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이용해서 재물을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람을 얻고자 하십니다. 사람이 재물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질 문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달라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는 재물 사용에 대한 원칙이 있나요?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재물을 잘 사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재물보다 귀한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 보세요.

암송구절 **고린도후서 12:15**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9월 11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9월
12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28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묵상할 본문 I 렘 49:2-6

2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
이며 그 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헤스본아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베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
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4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5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
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6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묵상 가이드

암몬은 자신들의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것을 규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빼앗아간 암몬은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될 것이며 백성들은 사로잡혀 포로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4절을 보면 암몬은 그들의 재물과 군사력을 의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누가 자신들을 대적하겠느냐는 교만이 보입니다. 암몬은 자신의 신과 자신들의 재물, 군사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가득한 상태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혹은 대상)을 하나님보다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내가 신뢰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2.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식당봉사로 수고하시는 팀원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삶에서의 감사의 제목들을 더하여 주소서.
3. 세계 곳곳에 가뭄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그리스도인들부터 지구생태위기에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소서.

화

9월

13

참된 만족은 하나님뿐입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88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묵상할 본문 I 렘 50:17-20

17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18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
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앗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
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19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
라 20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
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묵상 가이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앗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수탈한 이방국가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도 응답해주십니다. 70년이라는 포로생활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는 이스라엘은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며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 생명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세상의 죄와 유혹 속에서 채울 수 없는 욕망에 빠져 살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적 투자를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는 얼마나 할애하고 있습니까?

* 예배와 경건훈련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혹은 세상이 주는 기쁨만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 기쁨을 찾으며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2.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는 데코팀과 조경팀에게 은혜와 섬김의 기쁨을 주소서.
3.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타국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기주의를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아주는 사랑이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수
9월
14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74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묵상할 본문 I 렘 51:15-17

15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
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16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
람을 내시거늘 17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
이라

묵상 가이드

열방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딘가에 계시고 무엇을 행하시는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지으시고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게 하고 번개를 내리시기도 하시며 바람을 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이고도 확신이 가득한 어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한계 내에서만 한정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지성과 영성을 모두를 뚫고 일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내가 경험한 일을 통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의 기도

1. 나의 생각과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2. 상례팀을 섬기는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더하여 주시고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3.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주의 뜻 안에서 잘 정돈되며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삶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랑과 정의로 정치하게 하소서.

목

9월

15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41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묵상할 본문 I 렘 52:12-16

12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
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13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
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4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15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
고 16가난한 백성은 남겨 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묵상 가이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의 상징이자 자랑으로 여겼던 성전과 왕궁이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또한 자신들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겼지만 그들 역시도 이방국가의 포로와 포도원지기와 농부로 전락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가리라 생각했지만 국가는 망하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허울만 좋게 성전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상징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모양만 그럴듯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입술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따르는 삶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나누어 봅시다.

* 나에게 가장 큰 신앙의 자랑이자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지경을 허락하소서.
2. 새하늘찬양대원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장례를 치루는 유족들이 많은 위로를 얻게 하소서.
3. 긴장된 남북한 관계가 원만해지며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1. 저자와 연대

예레미야애가 안에서는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를 저자로 간주합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는 역대하 35:25의 진술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본 증인이라는 사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주전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결과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저작 시기는 주전 587년에서 516년으로 추정됩니다.

2. 주제

예레미야애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이르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고 심판을 받은 백성에게도 참이 됩니다. 예레미야애가에서 최종적인 핵심어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3. 목적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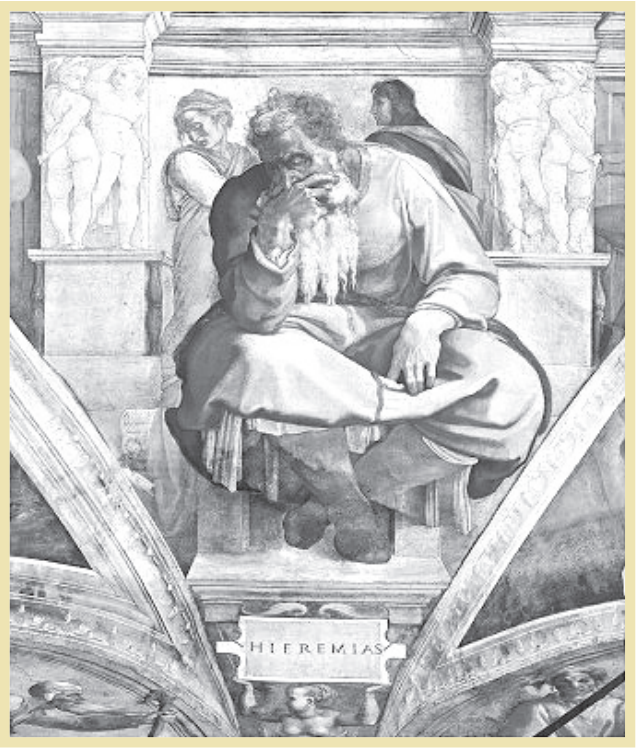
예레미야애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기 위한 예배에서 기도나 찬양으로 사용되기 위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이미 주전587년에 성전이 파괴된 지 몇 달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의식은 스가랴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도 계속 되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레미야애가는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는 일과 관련된 연례의식의 일부로 낭독되고 노래로 불리었습니다.

4. 예레미야애가의 구조와 각 장 요약

예레미야애가는 애가라는 시문학적 장르로서 아주 세밀히 계획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시문으로 구성되었고 시문 각행의 첫 글자를 맞추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되는 이합체(acrostic)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1, 2, 4, 5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인 22절로 되어있고 가운데 3장은 66절(22*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 4장은 각절 처음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고 3장은 각 행이 3절씩 구성되었는데, 한 행 속에 각 절이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5장은 알파벳 이합체가 아니나 22절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합체 시문은 히브리 애가의 전용적인 유현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시의 암기와 예루살렘의 심판이 A에서 Z까지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밀하고 계획된 구조를 통하여 본문의 저자가 메시지를 좀 더 논리적이고 뚜렷하게 전하고자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장 – 예루살렘의 불행과 황폐
2장 –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3장 – 유다의 애도와 위로
4장 – 시온의 과거와 현재의 대조
5장 –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유다의 호소



미켈란젤로의 예레미야

금
9월
16

고난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85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1-2장

묵상할 본문 I 애 1:1-5

1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
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
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
도다 3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
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
았도다 4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여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
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
도다 5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
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묵상 가이드

예레미야애가는 바벨론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시로 다섯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비통한 감정과, 그 원인이 된 유다의 범죄, 그리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자비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언어로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가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슬퍼하는 노래, 애도의 노래를 의미하듯 전체적 분위기는 비통하고 슬픈 분위기이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 백성들이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궁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 속에서 애통해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현재의 고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현재와 미래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며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2. 문화스포츠부 팀원들 모두가 하니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3. 고척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되게 하소서.

토

9월

17

하나님의 인자하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94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묵상할 본문 I 애 3:19-23

19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
심이 되오나 21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
었사옴은 22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묵상 가이드

우리 모두는 예레미야처럼 망국의 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는 망국의 아픔을 공유하는 국민들입니다. 전쟁의 참상과 유린당하는 국가, 국민의 설움을 알고 있기에 이 예레미야의 애가가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가슴 아프고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픔을 계속 간직한 채로 주저앉아 있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있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픔은 기억하되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은 죄로 무너졌고 고국은 전쟁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외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와 반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 나의 잘못을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나의 잘못을 용서해준 대상에 대해 어떠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2.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시간 예배와 행사를 섬기는 방송팀 봉사자들의 가정과 신앙을 세워 주소서.
3. 선교지의 사역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굳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힘 있게 전파되게 하소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찬 양 찬송가 546장

말 씀 호세아 14:1-3

나누기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외친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돌아갈 곳을 가르쳐주며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질 문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의한 일을 제거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암송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 보세요.

암송구절 **호세아 14:2**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9월 18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9월
19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0장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4-5장

묵상할 본문 I 애 5:19-22

19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20주께서 어찌하
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
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묵상 가이드

예레미야는 애가를 마무리 지으면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유다 사람들조차도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심을 고백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삶을 바라보면 희극보다 비극이 가득한 상황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는 삶이 됩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힘든 상황이나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2. 전산과 관련된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섬김과 겸손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3. 코로나가 다시 재 확산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소서.

1. 저자와 연대

저자는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입니다. 그는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귀족들 무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갔습니다. 그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것은 포로생활 5년째 되던 해인 B.C. 593년경이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은 것은 포로 27년째 되던 해인 B.C. 571년경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로 이기간 동안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목적과 배경

에스겔서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자신이 본 환상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3. 내용과 구조

1) 에스겔의 소명(1:1-3:27)

바벨론 포로 잡혀 온 지 5년째 되던 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여 마음이 굳을 대로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2) 유다에 대한 심판(4:1-24:27)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 왕국과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저지른 패역한 범죄를 조목조목 밝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양한 각도에서 거듭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살인과 간음과 탈취와 압제, 폭력 등 온갖 도덕적 악행을 저질렀고, 그 타락은 끝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타락의 실상을 조금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직설적이면서도 아주 진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25:1-32:32)

남유다 멸망에 즈음한 주변국 7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 예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남유다를 적대한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선민 회복 예언을 위한 전환부의 역할을 합니다.

4) 이스라엘의 회복(33:1-48:35)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한 남유다 패망 이후 즉 B.C. 586년 이후에 계시된 예언들의 모음집으로서 다시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던 선민의 회복 자체를 말하는 전반부(33-39장)와 선민이 장차 이 세상 끝에 들어갈 영원한 종말론적 왕국의 대환상을 보여주는 후반부(40-48장)로 나누어집니다.

화
9월
20

부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자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12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1-2장

묵상할 본문 I 겔 2:2-7

2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
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
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
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
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
을 알지니라 6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
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그들은 심히 패역
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묵상 가이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향해 에스겔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던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마다 맡겨진 사명은 다 다르겠지만, 부르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 오더라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충성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삶이 됩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에스겔의 사명은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에스겔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미디어홍보 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3.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소서.

수
9월
21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35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3-4장

묵상할 본문 I 겔 4:16-17

16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
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17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묵상 가이드

하나님께서는 토판과 일정 기간 동안 좌우로 돌아누운 것, 부족한 물과 부정한 떡을 통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당할 재앙과 고통을 예고하십시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심판을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이 의뢰하고 있는 양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의 양식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먹을 양식을 더 중요시하고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끊으려는 이유는 누가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인지를 알려주려 함입니다. 우리 또한 이 양식같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보다 눈에 보이는 먹을 양식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뢰하는 삶은 심판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참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새물결팀의 모든 사역이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돕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각 영역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반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목

9월

22

징계하심의 진짜 목적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70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5-6장

묵상할 본문 I 겔 6:11-14

11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12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
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13그 죽임 당한 시
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묵상 가이드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는 재앙을 선고받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벌을 받게 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길로 향하였던 사람들이 그 징계를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하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알게 되어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징계를 받지 않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깨달아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험케 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았습니까?

*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 징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함으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비와 긍휼을 경험케 하소서.
2. 선교부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도우소서.
3.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금
9월
23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72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7-8장

묵상할 본문 I 겔 8:6-11

6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
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7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
멍이 있더라 8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
니 한 문이 있더라 9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11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칠십 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같
이 오르더라

묵상 가이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성전 안에까지 그 가증함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이러한 죄악의 온상들이 아무런 제지없이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타락하니, 이스라엘 전체의 부패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중심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단절을 의미하며,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합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이스라엘의 중심이 타락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중심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진단해 봅시다.

*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위해 내가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나의 마음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2. 선교사님들의 사역가운데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소서.
3.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온전히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토

9월

24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35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9-11장

묵상할 본문 I 겔 11:8-13

8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
고 9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
니 10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
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1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
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12너희
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
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13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댜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묵상 가이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고관들의 가증함을 말씀하시면서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에스겔은 환상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남김없이 멸절시키시는 것은 아닌지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되기보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성공의 길이 있다면, 명예, 물질, 사람들의 인정, 똑똑함과 같은 세상의 성공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간직하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유다 고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서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기도

1.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2. 새가족양육부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전쟁의 참상 속에 있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찬 양 찬송가 191장

말 씀 데살로니가전서 5:16-22

나누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는 곧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데살로니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 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한 주 동안 노트를 한 권 준비하고 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내용, 기도한 내용, 기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암송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9월 25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9월
26

속담과 묵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84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12-13장

묵상할 본문 I 겔 12:21-25

21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2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
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23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
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24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25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
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묵상 가이드

에스겔이 활동 하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한 속담이 유행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전해졌지만, 아직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는 생각까지 팽배했던 것입니다. 수주대토(守株待兎)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옛 생각과 약속을 고집하며 지키는 사람으로 새로운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언을 전하는 에스겔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심판이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고, 심지어는 지금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속담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영원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마음 속에 담고 있는 속담이나 명언이 있습니까? 그것이 왜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 될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지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2. 전도부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소서.
3.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화

9월

27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88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14-15장

묵상할 본문 I 겔 14:12-14

12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
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
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
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
니라

묵상 가이드

에스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예언자가 있고, 또한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잘 알려진 대표적인 의인들인데, 그 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이 가득한 나라에 있게 된다면, 자기의 생명만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을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는 책임이 사람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대신 당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공동체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당신의 삶에 가장 큰 도움과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영향과 도움을 받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재정부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3.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수
9월
28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84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16장

묵상할 본문 I 겔 16:60-63

60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
우리라 61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
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62내가 네게 내 언
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63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묵상 가이드

'누구나 약속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란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언약을 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역사를 꾸미거나 얼버무리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죄를 부끄러워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당신이 지킨 약속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약속에 동참해야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누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차량부가 차량 이동 사역을 감당 할 때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3.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흘러 갈 수 있도록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소서.

목

9월

29

악인의 죽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73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17-18장

묵상할 본문 I 겔 18:21-24

21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
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
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3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
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4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
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묵상 가이드

악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악인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죽어 마땅한 악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 상황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 돌이켜 범죄하고 악인이 된다면,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비교로만 보더라도 전자가 후자 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주실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세상에서 가장 악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은 그런 악인을 어떻게 대하고 싶은지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2. 총무부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직원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게 하소서.
3.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지역 사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소서.

금
9월
30

여호와의 불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03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19-20장

묵상할 본문 I 겔 20:45-49

45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46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
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47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
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
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48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49내가 이
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
냐 하나이다 하니라

묵상 가이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받은 에스겔의 비유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불을 일으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은 하나님의 징벌을 상징하는데,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의 불은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북쪽까지, 나라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로 인해 모든 얼굴이 불꽃에 그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의 기세가 맹렬하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나라 전체가 불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이한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불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는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라 전역에 불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당신이 봤던 가장 큰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그 때 들었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누구도 하나님의 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불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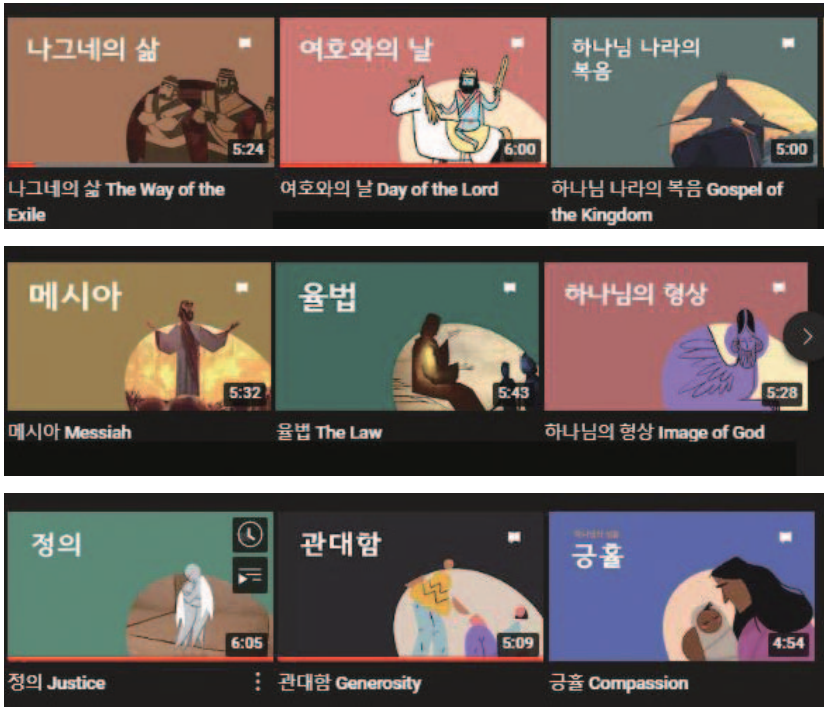
오늘의 기도

1.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2. 예배부의 사역을 통해, 고척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선포되게 하소서.
3. 하나님의 불 앞에 있는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유튜브 바이블프로젝트-성경의 주제들
(Korean BibleProject-Biblical Themes)

작년 매일묵상 2월호를 통해서 소개해 드린 〈바이블프로젝트-성경편〉에 이어서 〈바이블프로젝트-성경의 주제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리즈도 〈성경편〉처럼 움직이는 삽화들을 그려나가며 나래이션을 통해서 한 장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성경의 중요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도슨트를 통해서 미술관 전체를 설명을 듣는 것과 같이 쉽게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1가지 주제가 소개 되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바이블프로젝트-성경의 주제들〉을 통해 성경의 중요 개념을 잘 숙지하길 소망합니다.



교회소식
9월

교회

- 월삭새벽기도회 | 1일(목)
- 가을일체심방 시작 | 3일(토)
- 가을부흥사경회 | 4일(주일)-6일(화)
- 마더와이즈 지혜5기 개강, 희망의 복지재단 직원 워크숍 | 17일(토)
- 은빛시니어 2학기 개강 | 29일(목)

교회학교

- 어와나 2학기 개강 | 4일(주일)

예배시간 안내

GOCHEOK.PRESBYTERIAN.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은혜대예배당
	3부	오전	11:00	은혜대예배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6:00	은혜대예배당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0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40	세미나실(본관5층)
상담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e-메일 상담으로 운영합니다. gocheok1004@gmail.com 로 메일 보내주세요.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 1, 2부(초1-3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지층
소년 1, 2부(초4-6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본관B1층)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청년공동체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본관B1층)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memo.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예레미야 38:1-6)

● 두 그림 사이에서 서로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8개)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호세아 14:2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고린도후서 12:15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다니엘 2: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